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07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7월 6일 (윤달 5월 13일) 목요일

‘조작 파문’ 국민의당 ‘텃밭’ 지방의원들 흔들

지지율 곤두박질 이어 지방의원들 각종 추문·탈당 잇따라 “중앙당에 실망 금치 못해...내년 지방선거 걱정 고민 깊어”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 파문'으로 국민의당이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의 지방의원들도 비틀거리고 있다.

5일 지역정계에 따르면 지난 5·9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아들 의혹에 대한 제보 조작 파문으로 국민의당이 텃밭에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에서 당 조직의 모세혈관적인 지방의원들도 각종 추문과 탈당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광주 남구청사에서 흥기나동을 부린 A 남구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지

난 4일 사퇴서를 의장에게 전달했다.

A의원은 지난 5월 11일 오전 9시에 남구청사 1층 엘리베이터에 세워져 있는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남구노조 피켓 2점을 흥기로 훼손해 파문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A의원은 국민의당을 탈당했으나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요구하며 전락가능성을 벌였다.

국민의당 소속 해남군의회 B의원은 최근 읍주단속에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불의를 빚었다.

B의원은 지난 5월 30일 해남읍 우체국 앞 도로에서 읍주단속에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검찰에 약식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외증에 전남지역 기초의원들의 탈당도 가시화했다.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장흥군의회 C의원은 최근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C의원은 이번 제보 조작 사태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 한 기초단체장도 최근 민선 6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 과정에서 국민의당

탈당과 민주당 입당 등 향후 정치 진로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을 지켜보고 신중하게 고민하겠다"며 밝혀 지역 정계가 요동쳤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불합에 나서는 등 떠들썩했다는 이야기도 돌리고 있다.

이외에도 광주·전남지역 지방의원 일부 의원들은 "중앙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작 사건에 대해 심히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탈당 등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정계의 한 관계자는 "제보조작 파문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걱정하는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추문까지 이어져 국민의당이 갈 데까지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주춘경 기자



몽둥이론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독일로 출국했다. 발령은 무겁다. 독일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을 주관할 예정이다. 주요국 20개국(G20) 정상들과 만날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려는 새 정부 대북정책 기조를 한층 확정한 환경 속에 설파해야 할 상황이다. 파격적인 대북정책 대신 한층 더 다문 된 수위로 설득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독일 순방 기간 동안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면서도 대화 문을 열어야 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도발을 펼친 직후 이미 상대적으로 비중은 제재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 실패 직후 레드라인을 공개 언급했듯 오히려 선제적으로 강도 높은 제재 수위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문재인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하는데...



트럼프

말로는 안 된대니까



문재인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긴한데...

전남 노사민정, 합동 세미나 개최

한국노총 전남본부 보성서 남도의 밝은 미래 위한 방안 등 강구



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 이신원)가 주관한 전남지역 노사민정 합동세미나가 4~5일 양일간 보성다비치 콘도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전남지역 노사민정 관계자 및 노사대표 200여명과 임재영 전남도 경제과학국장, 이신원 한국노총전남본부 의장, 이만수 전남경영지총협회 회장, 김영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이용부 보성군수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 첫날인 4일 박성수 광주·전남

연구원장(전남대 명예교수)은 '남도의 밝은 미래를 위한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로서 상생은 시대의 소명으로 지나친 상호 경쟁 및 대립구조를 타파하고 지역 간 기능분담 및 연계협력력을 통한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전남 노사민정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동참하고 신뢰와 존중의 공생적 노사관계로 장시간 근로개선과 고용안정에 자발적인 협

력과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강에서는 김태수 (제일 인사노무법인, 법학박사) 노무사는 "1997년 IMF이후 비용절감이라는 비정상적인 이유에 의해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급속히 증가하였다"며 "현재가 비정상상을 정상으로 바꿔야 할 시점으로 이러한 변화는 직무중심, 인력양성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신원 의장은 "지난 5월 20일 화순 모후산에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전남을 만들고자 노사민정 산업평화 실천대회를 개최 하였다"면서 "이러한 전남지역 노사민정의 줄기찬 노력으로 전남이 기업하기 좋은 전남, 일하기 좋은 전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으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격려사에서 "전남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노사상생협력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 또는 우수상을 받은 유일한 광역단체로 이는 노사가 양보하고 협력해 산업평화지대를 만들어 낸 덕분"이라며 "새롭게 들어선 신정부의 이전 정부와 다르게 고용과 노동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산업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안정과 근로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편 이날 세미나에서 5개지역 (목포, 광양, 순천, 여수, 기타 시군)이 지역별 노사민정 간담회 시간을 갖는 등 소통을 통한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보성=인규일 기자

‘잠 못드는 밤’ 올 여름

광주·전남 이른 열대야

지난해비 3일·10년 평균비 16일 빨라

광주·전남지역에 열대야 방문 시기가 빨라졌다.

5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올 여름 첫 열대야 발생 시점은 지난 1일 (최저기온 25.4도)이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광주·전남 7개 지점 관측 평균)인 7월 17일보다 16일 빠른 시점이다. 지난해 열대야 첫 발생시점과 비교하면 3일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10년 간 광주·전남지역 연도별 평균 열대야 발생일수(연도별 열대야 총발생일수 ÷ 7개지점)는 2007년 10.7일, 2008년 12.4일, 2009년 6.0일, 2010년 19.1일, 2011년 12.9일, 2012년 17.7일, 2013년 23.7일, 2014년 3.6일, 2015년 5.9일, 2016년 15.4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월별 열대야 발생 일수는 7월 3.4일, 8월 5.0일 9월 0.4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 전후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을 받아 열대야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의 덥고 습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랐고 낮 동안 누적된 열이 밤에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